

## 우리나라 중부지방 춘파에 적합한 맥류 유전자원 선발

허지혜<sup>1</sup>, 유재련<sup>1</sup>, 하건수<sup>1</sup>, 정우석<sup>2\*</sup>

<sup>1</sup>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sup>2</sup>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량자원과학과

### [서론]

춘파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파종적기를 놓쳐 춘파하는 경우 수량의 감소는 품종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의 맥류 재배는 등숙 후기 장마의 영향과 벼 이앙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의 변화 양상 중의 하나는 장마기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이 장기화되고, 지역 간 차이가 크며, 산발적인 호우 패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맥류육종 목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시험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밀, 보리 유전자원들의 파종기에 따른 출수기 이동, 초형, 고온반응, 수량요소 등을 관찰하여, 춘파에 적합한 맥류 유전자원 품종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연구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원센터 등에서 분양받은 맥류 유전자원 47품종을 이용하였다. 파종 시기는 2018년 3월 14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실험이 실행된 포장규격은 주간거리 20cm, 줄 간 거리 30cm이며, 줄 길이는 3m, 1주에 2본 점파하였다.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여주 실험실습 농장에서 2018년에 수행하였다.

### [결과 및 고찰]

3월 14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파종한 맥류 유전자원 47품종의 대부분이 6월 중순 경에 출수하였다. 이 중 3월 14일에 파종한 밀 품종 IT293765, IT293769는 춘파 시 우수한 생육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파종한 IT012086, IT173161, IT173172, IT302662와 3월 28일 파종한 남해 밀, 은파 밀은 6월 중순 경에 잎만 무성히 자라고, 출수하지 못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7월 초순 경 다시 생육 상태를 확인한 결과, 6월 중순에 출수하지 못했던 4개체 중 IT012086, IT302662 두 품종만이 여전히 출수하지 못하고, 좌지 하였다.

3월 28일 파종한 외국 품종 중 하바로찬까, 프리모르스카야39, 달가우, 트리자 등은 생육이 우수하고, 양호한 수량을 나타낼 것으로 관찰되었다.

###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246503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2-450-3729, E-mail. jungw@konkuk.ac.kr